



▶ 金大中대통령,
과학대중화 지원 한층 강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金大中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분야의 고급두뇌를 양성하고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과학대중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가 영광된 조국을 실현할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올 한해도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①~②>





건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金榮煥 과학기술부장관의 건배제의에 따라 참석인사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가 영광된 조국을 실현할 주역...”



참석자 격려 김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며 답소하고 있는 참석자들

과학 대중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치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해는 참으로 시련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세계경기의 동반침체에 따른 경제난이었습니다. 이어 미국의 9.11 테러사태와 반테러 전쟁이 몰고온 충격파도 컸습니다. 남북관계도 기대한 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경제분야에서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북관계도 긴장이 완화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안정 속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3일 우리는 IMF 자금을 2년 9개월 앞당겨 완전히 갚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지금은 1천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만 1백1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미국, 일본, EU 등 3대 시장의 경기하강 속에서도 2%대의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평가 또한 크게 좋아졌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를 지식기반경제의 투자 순위에서는 3위로, 종합순위에서는 세계 10강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자기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높은 평가를 해 준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한국을 모범으로 삼고 한국에서 배우자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IMF덜고 새 발판 다져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내·외적인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혁의 고통을 참아내며 나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근로자, 기업인, 그리고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큰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낙관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일류 국가로 가

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과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우리는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 두 대회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야겠습니다. 두 대회의 성공을 통해 국운 융성은 물론 국민 화합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겠습니다.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도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협력하여 역사상 가장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가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가의 찬란한 발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경제 경쟁력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국가체질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현재의 높은 국제적 평가를 유지함은 물론, 올해 예견되는 세계경제의 회복 속에 대도약을 이룩할 태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최근의 아르헨티나사태가 개혁 실

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생활도 더욱 향상시켜야겠습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가 국운융성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적 사고와 과학기술이 이끄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세기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발전을 좌우하고 과학기술 인력자원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통산업기술과 함께 IT, BT, NT, CT, ET, ST 등 첨단기술 산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년은 세계의 IT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우리 전통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등이 수출에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제’ 도입

전통산업에 차세대 성장산업인 IT, BT 등 첨단산업을 접목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농업, 식품, 의료와 제약, 환경 등 모든 전통산업에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경



21세기는 창의적 사고와

과학기술이 이끄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과학 대중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98년 3.6%에서 올해 4.6%로 크게 높였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과학기술 훈·포장제도를 만들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더욱 장려하고 우수한 청소년이 이공계 대학에 적극 진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제도’를 도입해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노벨상에도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과학분야의 고급 두뇌를 양성하고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며 다른 한편으로 과학 대중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과학자 육성에도 최선

여성 과학자를 육성하는 데도 힘써야만 합니다. 지식정보화시대 여성 특유의 강점인, 섬세함과 유연성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과학자, 기업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국가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된 조국을 실현할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해도 더욱 정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㉟